

ON STAGE: 9 ARTISTS

바야흐로 아트위크가 돌아왔다. 달력을 빼곡히 채운 수많은 이벤트와 전시 일정이 아트위크의 위용과 번잡함을 동시에 드러낸다. 가만히 달력을 들여다보며 이 많은 이벤트는 과연 누구 위한 것인가 질문하게 된다.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미술계 전체가 들썩이고, 시장 관련 뉴스와 유통 주체들로 채워지는 지면들, 자본의 논리에 휩쓸리는 지금 우리의 미술 현장이 당연한 현상은 아닐 것이다. 이 이벤트의 중심에 누가, 그리고 무엇이 있는가? 정작 주의를 기울이고 정성 들여 준비하고, 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월간미술은 아트위크와 때를 맞추어 기획된 이벤트 목록을 살펴보았다. 미술관, 갤러리 등에서 한국 작가를 제대로 알리겠다는 의도로 블루칩 대가부터 중진-신진 작가를 소개하는 전시가 다수 마련되었다. 그중에서 화려한 시장의 반짝임을 잠시 제쳐두고 한국미술의 현상에 집중하는 전시, 그리고 작가들을 들여다본다. 이번 특집은 아트위크를 맞아 준비된 수많은 전시가 단시간 소비되고 흩어지는 이벤트가 아니라 전시의 주체인 작가들을 들여다볼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그리하여 이 시기 본인의 작업세계를 밀도있게 보여줄 개인전과 기획전, 혹은 부스전이 준비된 작가들 중 한국 현대미술의 지평을 보여줄 작가 9인을 선정했다.

구정아, 박론디, 박미나, 서용선, 성능경, 엄유정, 우한나, 제이디 차, 조용각. 9인의 작가는 세대와 장르를 가로지르며 한국 현대미술의 진행형을 보여주고 있다. 각기 다른 이슈와 조형 언어를 바탕으로 한국의 동시대 미술을 구사하는 '작가'를 초대하여 전시를 넘어 작품세계 전반에 대해 묻고 답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작가 인터뷰를 특집으로 마련했다. 지금 한국미술 현장은 어떤 작가에 주목하고, 그들의 화두는 무엇인지, 전시와 함께 작가를 들여다보는 자료이자 기회가 되길 바란다.

기획·진행 편집부

KOO JEONG-A
PARK RONDI
PARK MEENA
SUH YONGSUN
SUNG
NEUNGKYUNG
EOM YUJEONG
WOO HANNAH
ZADIE XA
CHO YOUNGKAK



우한나

1988년생.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예술사 과정과 전문사
과정을 졸업했다. 피부, 살, 근육, 뼈
등을 은유하는 조각을 제작하며 인간을
모든 타자와 구분 지었던 기존의
경계에서 벗어나 다른 존재와의
수평적인 관계를 도모하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희망한다. 보안여관(2023),
지갤러리(2023), 송은아트큐브(2020),
사루비아다방 (2019)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아트선재센터(2023),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2022),
대전시립미술관(2020),
일민미술관(2019),
국립아시아문화전당(2017)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했다. 2021년
난지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였으며,
제1회 프리즈 서울 아티스트
어워드(2023)를 수상했다.

● 프리즈 서울 아티스트 어워드 부스, 포커스 아시아 섹션 9.6~9



이상적인 공동체를 상상하며

Q. 최근 제1회 프리즈 서울 아티스트 어워드를 수상했다. 〈Milk and Honey〉(2023~) 연작의 일부인 출품작 〈The Great Ballroom〉(2023)에 대해 말해달라. 관객들이 작품에서 발견하기를 희망하는 지점은 무엇인가?

A. 인체의 노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피부이지 않나. 피부가 주름지고 처지는 것은 안 좋게 생각하는 반면, 천이 주름지고 처지거나 드레이핑으로 인해 생기는 곡선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면서 이를 극대화해 보여주는 작업이다. 노화 그 자체가 아름답다는 것을 느꼈으면 한다. 서로 늙음의 정도를 찬양하는 축제. 패브릭의 다양한 질감과 화려한 색감을

직관적으로 즐겼으면 좋겠다.

Q. 프리즈 포커스 아시아 섹션에도 나가게 되었다. 그 계획을 설명해달라.

A. 인간과 자연, 산 자와 죽은 자처럼 뭔가 적대적이고 상반되는 존재일 수 있는 다양한 인물, 배경, 상황, 양상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그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나의 철학을 계속해서 말하는 부스가 될 예정이다. 죽어있는 줄 알았는데 잎이 돋고 꽃봉오리가 막 피어나기 직전의 생명력 같은 것. 이를테면 차고 단단한 것으로부터 몰랑몰랑하고 더 증식 가능한 어떤 생명의 클로드를 발견하면서 관객들이 〈The Great Ballroom〉과의 연관을 생각해보면 좋겠다.

우선 〈Grand Coolly〉(2023)를 선보일 생각이다. 인류의 역사 속 짐승의 사체를 박제하고 벽에 걸던 과시와 추모의 행위를 상기하며

만들었다. 작업의 틀이 되는 알루미늄 조각은 포유류의 뼈이거나 어류의 가시, 조류의 날개뼈, 나뭇가지 또는 이파리의 잎맥일 수 있는 상태로 벽에 걸리고, 그 사이는 다양한 종류의 패브릭으로 이어지고 엮인다. 얇고 반짝이며 유연한 천 조각은 접합의 재료로 사용되며 마치 죽고 마른 시체에 어떠한 에너지가 달아 되살아나는 마법의 순간처럼, 더이상 상상하지 않은 뼈대로 아직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되기 직전의 꿈틀대는 상태를 제시한다.

또한 〈Bough and Twig〉(2023)와 〈Twig_1〉(2023)을 출품할 계획이다. 서로에게 의지한 채 서 있는 두 개의 막대로 이루어진 〈Bough and Twig〉는 동물의 뼈와 나뭇가지를 닮았으며, 바늘의 뾰족하고 날카로운 혹은 관통하는 이미지를 담고 있다. 나는 반복적으로

왼쪽 〈Bough and Twig〉 알루미늄, 패브릭, 실, 비즈, 추 180×120×66cm 2023

오른쪽 〈Twig_1〉 알루미늄, 실, 패브릭, 솜, 비즈, 추 84×40×17.5cm 2023

왼쪽 페이지

〈Milk and Honey-4〉 패브릭, 비즈, 솜 235×163×40cm 2023

제공: 작가, 지갤러리



작업 안에서 지배와 피지배, 공격과 방어, 낙관과 비관, 죽음과 삶 등의 대립하는 상태를 설정하고 경합하게 하는데, 그 경합의 방향은 대안적 힘의 탄생을 향한다. <Bough and Twig>는 언뜻 보기에 물기와 혈기가 없는 차갑고 마른 막대가 간신히 서 있는 듯하지만, 섬세하게 바느질된 형광색의 실과 반짝이는 비즈 디테일로 이제 막 돌아나거나 피어오르고, 새어 나오는 생명의 순간을 시각화한다. 얇은 천과 끈은 덩굴식물의 줄기처럼 막대를 휘감으며 위로 뻗어가고, 가까이 들여다보면 발견할 수 있는 촉수적 돌기들은 예측 불가한 폭발과 변화의 가능성을 감지하게 한다.

Q. 피부, 살점, 근육에 뼈대가 추가되었다.

A. 그동안의 패브릭 작업들은 그 자체로는 직립할 수 없었다. 말하자면 항상성이 부재한 매체였다. 그만의 장점도 있지만 늘 같은 모습이지는 않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단단한 재료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그래서 실제 버려진 나무를 가지고 와서 쓰기도 하고 그 나무에 점토로 조각을 하기도 했다. 소조를 통해서 점토로 모양을 만들고 그 자체를 알루미늄으로 캐스팅하는 방식으로 단단한 재료를 쓰고 있다. 최근에는 3D 프린트로 있고 컴퓨터상으로 도면을 통해 만들거나 조각을 출력해내는 경우가 많은데 왠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손으로 빚어가면서 만들어낸 조각이라고 볼 수 있다.

Q. 지갤러리 전속작가이다. 함께하게 된 계기나 과정을 말해달라.

A. 보통 갤러리에서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면 회화 작품을 다루고 싶어서 연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작년에 큰 기대 없이 지갤러리와 만나게 되었는데, 놀라웠던 것은 나의 그림보다 대형 설치

조각에 관심이 있다는 점이다. 규모가 큰 설치 조각을 제작해보고 싶었으나 졸업 후 지금까지 그러한 작품을 제작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대표님은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하도록 독려하며 나를 좋은 작가로 성장시키고 싶어했다. 그래도 포커스 아시아 부스만큼은 패브릭 조각이나 회화 작품을 원하실 줄 알았는데 판매를 고려하지 말고 하고 싶은 작품을 하라고 하셨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Q. 패브릭이 삭거나 오염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작품 소장을 꺼린다는 얘기를 들었다. 패브릭을 자주 사용하는 작가로서 이러한 편견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A. 내가 사용하는 패브릭은 특히 견고하다. 주로 텍스 원단, 공단 원단을 쓴다. 그러니까 합성섬유다. 합성섬유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이라고

“때로는 어떤 영역의 거대한 호수나 바다를 볼 때 우리는 늘 그들과 에너지를 교환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아무 거리낌 없이 이것이 배경이다 혹은 환경이다하면서 타자화할 수 있는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싶다.”



보야 한다. 플라스틱도 결국 마모가 되겠지만 다른 재료랑 견주어보았을 때 내구성이 약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혹시라도 떨어지면 기우면 된다. <팀 버튼의 크리스마스의 악몽>을 보면 솜으로 만든 인형 캐릭터가 나온다. 이 인형의 팔이 떨어지는데, 주머니에서 바늘이랑 실을 꺼내어 기워서 다시 팔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온다. 난 그러한 특성이 패브릭이랑 닮았다고 생각한다. 무한정 연장이 되고, 무한정 수선이 되고, 혹시 어느 부분이 삭았다면 그 부분을 잘라내고 그것과 비슷한 천으로 기워내면 그만이다. 그런 부분에서 패브릭의 특성 자체를 받아들이면 좋겠다.

Q. 아트페어가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나. 젊은 작가 중 그동안 손에 꼽히게 많은 전시를 연 사람으로서 미술시장이나 아트페어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

A. 내가 이해하기로 페어는 많은 사람에게 빠른 시간 안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그 기회를 잘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의 작업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을 선보이면 좋을 것 같아 익숙하지 않은 재료에 도전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전시를 했고 어쩌면 미술관 관계자들 그리고 독립 큐레이터들에게는 이제 너무 익숙한 작가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결국에 작가가 제대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면 작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 내가 무한정 재정적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가족의 도움으로 작업을 이어오기도 했다. 그것이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상업신과 같이 가지 않으면 작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다. 그래서 좋은 시기에 시장에 소개되는 것 같다. 한편 시장부터 시작해버리면 작품의 가치가

판매 가격으로만 평가될 리스크도 있으니, 나는 어쩌면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도 든다. 작가로서의 입장은 너무 좋다. 작년 아트페어 주간에 해외 관계자들이 스튜디오로 방문했고 그중에 하나가 아트선재센터 전시로 연결됐다. 그 후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됐다. 아트선재센터에서 전시할 때 해외 미술관 관계자들의 스튜디오 방문이 거의 7건에 달했을 정도였다. 이것은 프리즈라는 기회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한국작가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프리즈 서울이 한국 미술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노재민 기자

《Appearances》Frieze No. 9 Cork Street 전시 전경 2023 사진: Robert Glowacki 제공: 작가, 지젤러리

왼쪽 페이지

〈Joints〉알루미늄, 패브릭, 실, 비즈, 추 24×52×58cm 2023

